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민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얼마 전 어느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와 난임 극복에 대한 국가 과제를 준비할 때의 일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난임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그가 가슴속에 묻고 있던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28살의 젊은 부인이 임신 사실을 알고 진료를 받으러 왔었는데, 자궁에 심한 염증이 생겨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치료 이후에도 자궁에 유착이 생기고, 회복이 불가능하여 불임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사 선생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젊은 부인의 간절한 소망을 잘 알기에 끝까지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난임 관련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소회를 말한 것이다.

난임 치료와 관련된 이번 미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동연

어느 의사의 따뜻한 슬픔

구에 임하는 의사 선생의 마음엔 그녀와 같은 환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각오가 담겨 있었다. 또 이러한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돕는 전문가로서 그의 따뜻하고 슬픈 고백이 연구진 모두에게 강한 동기 부여가 됐다. 따라서 진행하려는 연구를 성공시켜서 그녀와 같은 아픔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연구에 매진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의 행복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35만 7000여 명으로 가입 여성 1인당 출산율 1.05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중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따른 결과이겠지만 우리나라 산모의 출산 연령도 점점 고령화되어 30%에 가까운 산모들이 3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고령의 초임은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져 출산율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난임(질병코드 N97)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여성의 경우 20만 명을 넘어섰다.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청년 실업, 소득, 주택 가격 상승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들

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 도 갖지 못해 병원을 찾는 난임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증빙이기도 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여성 난임의 경우 원인 불명(46.3%), 나팔관 장애(19.1%), 배란 장애(16.6%), 자궁내막 장애(13.5%) 등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출산 장려금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등에도 출산율이 향상되거나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난임 또는 불임 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부족해 출산율 향상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미래 사회학자들은 국민의 삶의 질 저하, 가족관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충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국가의 존립과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저출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접근에 대한 인식 변화, 청년 실업, 소득, 주택 가격 상승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들

금까지 정부가 시행했던 저출산 정책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로 비현실적인 지원 수준, 효과성 대비 낮은 효율성, 영유아 보육에만 치중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난임 치료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임 극복으로 인한 출산율의 증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정부는 당초 이달 초에 저출산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저출산 대책 주무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인부터 혼혼부부 주거 안정, 출산과 육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난임에 의한 출산율 저하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치료 기술 개발 연구가 이번 저출산 대책 발표에 포함될지 관련 분야 연구자로서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로 인해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느끼는 안타까움도 볼 햇살처럼 따뜻한 희망으로 환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社說

금호타이어 살리는 길 노조의 양보밖에 없다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 시장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날로,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강경 일변도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타협안 모색 주무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인부터 혼혼부부 주거 안정, 출산과 육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난임에 의한 출산율 저하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치료 기술 개발 연구가 이번 저출산 대책 발표에 포함될지 관련 분야 연구자로서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로 인해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느끼는 안타까움도 볼 햇살처럼 따뜻한 희망으로 환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한 연장은 불가능하고 법정관리 시정산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금호타이어 운명은 노조의 손에 달려 있다. 문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8만 명에 달하는 금호타이어 가족의 운명이 몇몇 집행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 직원 투표로 운명을 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길은 노조가 한발 물러서는 것밖에 없다. 중국 내 3개 공장 운영 측면에서도 타협안을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된다. 해외 매각 반대 논리로 내세운 ‘택티 우러’도 있지만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발등의 불은 끄고 보아야 한다. 우선 법정관리는 피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장기 운영계획 및 고용 보장(10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의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없다.

게다가 오는 4월 2일 임시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은 이사회에서 법정관리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고 봐야 한다. 이제 금호타이어를 살리고 광주를 살리기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 매각 외에 대안이 없다’는 채권단과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마저 “시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지난 해 11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6마리의 개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다. 이 개들은 다름아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오수개들이었다. 숲에 취해 풀밭에 잠이 들어있던 주인을 자기 몸에 개울물을 적셔 불을 끄다 지쳐 죽었고, 잠에 깬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개를 땅에 묻어주고 지팡이를 꽂아 주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썩어 나고 큰 나무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를 오수라 부르고 그 때부터 마을이름도 오수라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

필자도 몇 년전 오수교당에서 근무할 때에 제일 먼저 가본 곳이 오수 원동산 공원에 있는 의견비(義犬碑)였다. 황금개의 해인 울해에 오수를 찾는 사람들이 부

불안견유불(佛眼見惟佛)의 의미

쩍 많아졌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견공들과 삶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왔다. 요즘 주변에 애견 미용실, 애견 보육에 이어 애견 모자까지 등장했다. 며칠 전에 만난 한 분은 자신은 라면을 먹어도 반려견은 유기농을 먹인다고 할 정도로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개의 논란’으로 시끄럽다. 울산시장의 경찰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은 “정권의 사냥개에 광견병에 걸렸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경찰관들이 “돼지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부처로 보인다(象眼見猪家, 佛眼見惟佛)”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성계의 익살스런 놀림에 당대의 고승이었던 무학대사가 선문답으로 일갈한 이 말의 본의는 서로간에 공경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부처님이 바라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는 마음 가짐뿐만 아니라,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도 포함이 된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 하

고, 불교에서는 자비, 원불교에서는 감사라 한다. 이렇듯 불안견유불(佛眼見惟佛)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핵심 문구다.

이 단어를 뉴스에서 보니 반갑기도 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씁쓸하다.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성주 소성리의 현장에 있었던 필자로서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발언이 마음 한켠에 묘하게 다가온다. 공권력이라는 힘 앞에 무기력하게 생존권을 박탈당해야 했던 많은 약자들은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4월 26일, 성주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던 그 새벽이 생각난다. 소성리 좁은 도로를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사드 배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해 주민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는 경찰들을 보며, 오히려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말지 마시디. 밀다가 경찰들 차량에 부딪쳐요!’라는 말에 억울함과 함께 섞인 감동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 억울하고도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망해야 할 대상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울산시장의 수사 하나를 놓고 이리도 분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당치가 않다. 그동안 경찰에 대한 반감과 사

회적 모순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장제원 의원의 말은 그동안 음식점에서 무료로 식사 제공을 받았던 식당에서 돈을 내고 밥을 사먹으라 요구하는 식당에 갇힌을 치는 저자거리 건달의 모습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무학대사가 견낸 불안견유불(佛眼見惟佛)이라는 선문답이자 직언이었던 이 말은 이성계 자신이 먼저 참된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야 백성이 이를 본받아 조선의 큰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을 공경하고, 가족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면 천하에 평화가 깃든다. 이것이 중용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이다.

이제 곧 4월이다. 4월이면 장흥 한재공원에서는 할미꽃이 군락으로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3-4년 전 산불이 낫는데 신기하게도 고사리가 남아 할 자리에 할미꽃이 먼저 피워 군락지를 이뤘다. 할미꽃의 꽃말은 ‘공경’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한재공원처럼 한 할미꽃처럼 사회 의 지도자와 천하 모두가 공경의 마음이 확산되어 천하가 태평하고 평화로운 낙원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서민 울리는 아파트 주택조합 사기 근절해야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린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이뿐만 해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용지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뽀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택 사업이다. 일반 분양과 달리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반 아파트 대비 10~20% 정도 싼 탓에 인기가 높다. 그러나 토지 매입 단계에서 상당수 사업이 좌초되고, 조합원들의 자금은 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에초에 투자금만을 챙기고자 하는

사기 행위로 늘어나고 있다. 광주 동부 경찰에 구속된 이 모(48) 씨 역시 학동 3거리 일대다 구경이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해제 불가능함에도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피해 호소자만 75명에 피해액이 27억 원이지만 전체 조합원이 241명인 점에 비해 보면 피해액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행사의 말에 현혹돼 투자하지만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계약에 앞서 조합원 인거나 사업 승인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구청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출제 기관의 수장인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임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가 그것이다. 지난 27일에는 어김없이 ‘EBS 수능 연계율 70%’라는 출제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EBS 교재를 토대로 문제의 7할을 출제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인터뷰를 했던 한 수능 출제위원은 이렇게 귀띔하기도 했다. “출제위원들은 70% 연계율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노력한다. 각각 문제를 낸 뒤 EBS 교재 어디에서 문제를 따왔는지 출처를 명기할 정도다.” 그 전형적인 방식은 EBS 교재에서 지문을 가져 온 뒤 에초와 달리 질문을 바꾸거나 빈칸 추론 문항에서 괄호 위치를 바꾸는 것 등이다.

EBS 교재를 연계한 수능 출제는 2004년 사교육을 줄이고 동능(都農)간 교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도입됐다. 초기에 30% 정도였던 연계율은 나중에 무려 70%까지 올랐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음지도 있기 마련이어서 일각에서는 EBS 연계 출제 방식을 공교육 파행의 주범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고3 학생들이 임시 학원처럼 교과서를 제

처 두고 EBS 교재 문제 풀이에만 매몰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급기야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다. 수능 응시생 2명이 수능 기본계획을 문제 삼아 ‘수능 시험 문제 70%’라는 출제 가이드라인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다. 재판관들은 최근 “수능 기본계획은 다른 학습 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판결이 나왔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EBS 연계 수능 출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일단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현재의 EBS 수능 연계 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8월께 2022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EBS 수능 연계율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학생·학부모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개편안이 나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나올 개편안에는 학생·학부모들이 공감하는 정밀 교육적인 방안이 담겼으면 한다. /윤영기 사회부장 panfoot@

EBS 교재와 수능

기 고



최희용
위민연구원 이사·세무사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보면 ‘정기예금 이율 2.3%’라는 제2금융권의 플래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3%’라는 이율이 꽤 좋은 편이라, 저렇게 플래카드를 띄하니 걸어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어느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미국GM이 한국GM으로부터 받은 이자율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흥분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있었다. 저축은행도 아닌데, 5.7%라는 높은 이자가 말이 되나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난 맥쿼리에 대해 오랫동안 분석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율마저 부러울 뿐이었다.

몇 해 전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부채를 일으키면 이자 몇 프로나 줄니까?”라는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도로공사 사장은 “2% 정도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세금 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와 맥쿼리

에 이 의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호통을 쳤는데, 그 내용은 “2%이지만 주고 직접 도로 사업을 하지, 왜 민자 투자를 하게 해서 적어도 5%대의 수익률을 주는 거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거냐?”라는 것이었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아~”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어찌나 부럽던지... 왜 우리 광주 제2순환도로와 이렇게도 비교가 되는지. 중앙 정치 하 시거나 하했던 분들은 지방 정치인과 다른 것이지. 왜 우리 광주에는 저런 정치인이 없는 건지 잠시 상념에 잠겼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실태를 살펴보자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2순환도로의 사업 시행자이다. 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로부터 맥쿼리는 이자를 얼마나 받고 있었을까? 2016년도 회계 감사 자료를 보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에 연 20%, 15%, 10.5%, 10%의 이자를 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돈이 넘쳐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주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다. 그 돈의 출처는 다름 아닌 통행료와 재정 보조금으로 즉,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10년 넘게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말 현재 광주광역시 2000억 원이 출격 넘는 돈을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이라는 협약 아래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로부터 이자 비용이 약 3980억 원에 달한다. 재협약 결과 앞으로도 보조금으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줘야 하며, 이자 비용 또한 불균등 상환을 한다고 할 지라도 1700억 원을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맥쿼리에 지급해야 한다. 물론 원금은 보장받으면서...

시민들은 이자를 2%대만 준다면 예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수익률이 퍼보지만,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맥쿼리는 세금과 통행료로 얻도당도않은 이자율과 수익률을 챙겨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시설 관리 업체가 한동안 무면허였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성을 뒤로 하고 무면허 업체에게 수년간 시설 관리를 맡겼던 것이다. 도박을 하다가 산이 탕진이 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그것도 시민의 안전을 걸고.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분의 유언장에는 시설 관리 업체의 상남 구

조가 있다고 하고,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거래 의혹까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 참여자21은 지난 27일 “공익 처분만이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4월 중 법률 검토 후 위법성이 확인되면 5월 9일 이후 공익 처분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반기치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더 남아있다. 3-1 구간 재협약 문제와 1구간의 의혹들. 그리고 그들과 공생 관계였던 자들의 문제이다. 지금 광주에서 맥쿼리의 손을 들어 주는 자가 있다면 어떠한 변명도 없이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맥쿼리는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맥쿼리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광주 시민들이 역사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듯, 부도덕한 투기 자본 세력을 배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